

통일 칼럼

北 “韓, 동족서 배제”

북한의 최고인사결정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5년 만에 일주일간 진행된 뒤 지난 2월 막을 내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우리에게 대항선 동족이란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선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향후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당일 북한 전역에서 모인 당 대표자와 방청객 등 7천 명이 대회의장을 배회해 제했다. 집행부를 이끌고 입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5년 전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외적 위상을 과시하며 9차 당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베일에 가려졌던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는 폐막 이후 공개됐다. 먼저,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제 명 정부의 대북정책도 서투른 기만



정복규
논설위원

극, 줄자이라고 폄하했다. 군사적 위협도 배놓지 않았다. 반면, 미국을 향해선 조건부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미국이 북한의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의 불씨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도 발표했는데,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상과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인공 지능을 활용한 무인공격 전력, 위성 공격용 특수자산, 전자전 무기 등을 제시했다. 대남 공격용 타격 수단인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등도 해마다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당 대회가 폐막하던 날 밤, 김일성 광장에선 기념 열병식도 열렸다. 이례적으로 병력만 대규모로 참여했고, 전략무기나 재래식 무기는 열병식에 동원되지 않았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외부에 무력을 과시하기보다 체제 결속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 7차~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대업 부분에 모든 걸 집중하는 데에 당대회를 활용했다. 9차 당대회에서는 그동안의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핵능력을 충분히 갖춰주고 판단한다. 9차 당대회에서는 또 노동당 정치국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절반 이상을 교체했는데, 주요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권력 최상위에 있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탈락하고,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과 리일환 당 선전비서가 선출됐다. 정치국 상무위에 군부 인사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당규를 부장과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두 사람이 상무위원 5인 체제에 들어오고 군사 부분은 빠진 것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띈다. 장관급 직위에 오른 김여정은 앞으로 안정적인 후계 관리 등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올해의 팝 앨범’ 수상 소감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28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아이히트리디오 뮤직 시상식에서 ‘올해의 팝(POP) 앨범’ 상을 받은 후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美 더블린에 개장한 한인마트에 진열된 한국 과자들



지난 28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더블린에 새로 개장한 대형 한인 마켓 ‘H마트’ 매장에 다양한 한국 과자들이 진열돼 있다. 이 매장은 약 3473㎡(약 1040평) 규모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사설

전주역사박물관 ‘효자동화’ 기획전시

전주역사박물관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효자동화’ 기획전시를 열었다. 이번 기획전은 효자로 유명한 동네인 전주시 효자동 곳곳에 남아 있는 마을 이야기를 모아 ‘동화’라는 주제로 소개하면서 효자문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했다. △효자동의 유래, 산천, 인물, 변천 과정을 소개한 ‘효자동’ △어린 시절 각색해 효자동과 관련된 이야기 4편을 소개한 ‘효자동화(童話)’ △향공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효자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자동화’는 △도로명을 통해 효자동에 남아있는 마을 이야기를

소개한 ‘효자동화(童話)’ △나뉠아는 맛집, 자연, 역사 명소 등을 소개하는 ‘내가 쓰는 효자동화’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강사를 초빙해 ‘효자동 사람들’을 주제로 한 전시연계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강연은 △효자동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효자동에서 활동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등 평소 효자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명 주소에 담긴 효자동의 옛이야기를 마주하며 빠르게 발전한 효자동의 변화상을 이면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역의 이야기를 읽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다.

조각가 나영근 개인전 ‘소통’

조각가 나영근의 개인전 ‘소통’이 3월 3일부터 15일까지 교동미술관 2관에서 열렸다. 그는 전체만을 바라보는 사회에서 부분의 존엄을 말하는 작가다. 멀리서 보는 풍경은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자연의 산과 들이 그렇고, 도시의 빌딩 길을 지나는 도로 또한 그렇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은 각각의 자연물과 인공적 구조물이 이어지거나 연결돼 만들어진 조화적 풍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이 모여 이뤄진 총합의 집합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전체의 윤곽을 살피는 데는 익숙하지만, 각각의 개체들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탓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존재, 무희, 소녀 등의 제목이 붙은 작품에서 영명이나 배, 허리, 다리 등 특정부위를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 일종의 착시현상처럼 보이는 데,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현상을 지적하는 작가만의 표현방식이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